



2019 동아스포츠대상 D-6

- 5대 프로스포츠 종목별 '올해의 선수' 시상
- 12월 11일(수) 오전 11시 포시즌스호텔서울

LPGA 코리아스타 릴레이 인터뷰 3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의 끝없는 도전

“상복 터진 2019년 난 아직도 고프다”

시즌 4승·전관왕...LPGA 2년만에 완벽한 외국 선수들과 수다 떨다보면 어느새 힐링 올해 26개 대회 출전...체력 달려 힘들기도 새해 소망? 도쿄올림픽서 금메달 따는거죠!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한국 여자골프는 올해 역시 메이저 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냈다. 2015년과 2017년 달성했던 15승을 다시 한번 합작해냈고, 사상 첫 전관왕과 5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하며 위상을 높였다. 스포츠동아가 올 시즌 LPGA 투어 폐막을 맞아 마련한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주인공은 2019년을 자신의 해로 만든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다. 달콤한 겨울방학을 앞둔 4일 서울시 강남구 갤럭시아SM 본사에서 만난 고진영은 “2019년은 정말 매순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였다. 피 나는 노력과 씬 없는 연습이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나와 뿌듯했다”면서 “이제 새해가 밝아온다. 소망은 그리 거창하게 잡지 않으려고 한다. 올해처럼 후회 없는 시즌을 만들고 싶다. 또 출전할 수 있다면 2020도쿄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미국 진출 후 고진영이 이뤄낸 업적은 일일이 나열하기가 버거울 정도다. 공식 데뷔전이었던 ISPS 한다 호주 오픈에서 정상을 밟으며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한 역대 두 번째 신인이 됐고, 올해 두 차례 메이저대회(ANA 인스퍼레이션·에비앙 챔피언십)를 포함해 4승을 거두면서 한국인 최초의 전관왕으로 등극했다. 세계랭킹 1위 자리까지 최근 19주 동안 지켜내고 있다.

“한 시즌이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일단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기분이다. 많은 우승도 차지하고 많은 상도 받았다. 데뷔 후 이런 시즌은 처음이었다. 그래도 늘 아쉬움은 남는다. 사실 내 성격이... 만족을 모른다, 하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미국행을 결정한 고진영은 외향적인 성격과 타고난 자신감을 앞세워 일찌감치 적응을 마쳤다. 외국 선수들과 의사소통에서도 주저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올해 맹활약의 결정

적인 원동력이기도 하다.

“외국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라. 브룩 헨더슨, 에이미 울슨, 캐서린 커크와 같은 선수들과는 때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눈다. 다만 대화를 할수록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대학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올해를 영어학원도 다닐 계획이다.”

남부럽지 않은 2019년을 보낸 고진영이지만 힘든 순간도 있었다. 후반기 체력 저하와 발목 부상이 함께 찾아오면서 생긴 아픔이었다. 고진영은 “올해 LPGA 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통틀어 26개 대회를 뛰었다. 이동이 많아하니 후반기 들어 탈이 나더라. 내년에는 대회 숫자를 줄이려고 한다.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질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숨 가쁜 한 해를 보낸 고진영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내년 1월 미국 샌디에이고로 동계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겨울방학 기간은 겨우 한 달여 정도. 물론 이때에도 메인 스폰서 계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걸려있다. 고진영에게 해외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풀 계획이냐고 묻자 손사래와 함께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아휴, 해외는 괜찮아요. 비행기는 더 이상 못 타겠어요.”

고봉준 기자 shulout@donga.com

고진영은?

▲생년월일=1995년 7월 7일 ▲출신교=용마초~세화여중~은광여고~성균관대 ▲후원사=하이트진로 ▲소속사=갤럭시아SM ▲프로 데뷔=2014년 ▲우승 경력=KLPGA 투어 통산 10승, LPGA 투어 통산 6승 ▲수상 경력=2016년 KLPGA 투어 대상, 2018년 LPGA 투어 신인왕, 2019년 LPGA 투어 전관왕 ▲2019년 기록=올해의 선수 1위(241점), 상금 1위(277만3894달러), 평균타수 1위(69.062타),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1위(138점)



세계랭킹 1위의 2020년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에게 2019년은 특별한 한 해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무려 4승을 혼자 올리며 전관왕을 차지했고, 최근 19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최고의 한 해를 넘어설 그의 다음 해 목표는 무엇일까. 고진영이 4일 서울 강남 갤럭시아SM에서 '2020' 이 새겨진 골프공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CJ CHEILJEDANG
(09~16년 식약처 생산실적 중 자사 전립소 브랜드 생산실적 기준)

대한민국 1등!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2+1 이벤트
(본품 1박스 추가 증정)

Returnup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간당기능성분 30g(500mg X 60캡슐)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남성들의 고민! 전립선.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로 당신의 활력과 자신감을 찾으세요!

소변고민, 떨어진 자신감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를 추천합니다

- ▶ 잠을 자다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어나는가?
- ▶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십니까?
- ▶ 배뇨 후 소변이 남아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 ▶ 소변줄기가 자주 끊어지고 약하십니까?
- ▶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우십니까?

〈제품정보와는 상관없는 건강정보입니다〉

소변문제, 전립선 때문인걸 아세요?

전립선은 남성에만 있는 뱀불 크기의 생식기관으로서 중년이 되면 남성호르몬의 변화로 사리만큼 크기가 커져 발광과 요도를 압박하여 여러 가지 소변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심의 질을 저하시키고 남성의 자신감까지 잃게 하는 전립선 고민! 더 이상 슬기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루 빨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700명 대상 인체시험을 통해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아노/소변속도 개선 확인

-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셀레늄 추가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여 체내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비타민 B1, B2, B6, B12 함유로 남성의 에너지와 활력 충전까지
- ▶ 중년 남성의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꼭 필요한 아연 함유

CJ제일제당 건강케어센터 무료상담 및 주문
12월 2+1 이벤트
2박스 구매시, 본품 1박스 추가 증정
080-722-9988